

고하 송진우선생 탄신 120주년 추모식

오늘 우리는 조국광복과 건국운동에 헌신하신 고하 송진우 선생님의 탄신 120주년을 맞이하여 선생님의 숭고한 애국혼을 기리고 그 유지를 받들고자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생을 조국의 독립과 민주국가 건설을 위해 고귀한 삶을 살다 가신 선생님의 영전에 삼가 경건한 마음으로 명복을 빕니다.

고하 선생님께서는 사상가이자 교육자로서 또한 언론인으로서 우리 민족이 일제치하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국민계몽과 인재육성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민족혼을 일깨우는 데 헌신하셨습니다.

일찍이 선생님께서는, “일제를 이기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상을 가져야 한다”는 사상개혁론을 주창하시며 민족이 나아갈 바를 제시하셨으며,

민족독립운동의 동량이 될 학생들에게 신학문과 독립사상을 가르치면서 민족의 힘을 기르는 데 열정을 불태우셨습니다.

3·1운동 후 일제가 문화통치를 표방하자, 동아일보 사장으로 취임한 선생님은 일제의 온갖 탄압과 회유를 물리치고, 언론의 정도를 걸으면서 조국의 독립을 도모하셨으며, 광복 후에는 자유 민주국가 건설을 위해 선진사상과 경륜을 펼치시며 부강한 조국을 일으키고자 진력하셨습니다.

이처럼, 선생님은 일제의 혹독한 언론탄압에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과, 대쪽같은 신념으로 조국의 자주독립과 민주주의에 외길로 매진하시어 애국혼의 표상으로 우뚝 서 계십니다.

민족의 큰 지도자이신 고하 선생님!

올해는 한일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백 년을 거울삼아 선생님을 비롯한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 백년대계를 그리며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하여 선진일류국가 건설과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하 선생님께 한없는 존경과 추모의 정을 바치며,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부디 영면하소서!

2010. 5. 7.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이 희 범